

낙선호시(樂善好施), Cooperate Philanthropy



지난주 모 방송을 통해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천하제일이라고 자처하는 중국 상술과 중국 상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중 특히 중국 안후이성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했던 상인들을 일컫는, 휘상에 관한 얘기가 특히 흥미로웠다.

명·청시대 중국 양저우.

운하를 근거지로 소금과 목재업 등을 통해 중국의 상권을 좌지우지했던 휘상은 많을 때는 청나라 전체의 세금 중 3분의 1을 담당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시 황제인 건륭제도 수시로 이들을 방문해 위로와 함께 세금납부를 독려했다고 한다.

장사를 전쟁에 비유해 집안 곳곳에 삼국지의 전쟁 장면을 새겨 놓았던 휘상들은 천하제일을 자처하는 중국의 상인들 가운데서 권력과 금력을 두 손에 쥐었던 가장 뛰어난 상인들로 인정받고 있다.

이 휘상들 중에 양저우 소금상인들의 총수였던 바오즈다오(鮑志道)라는 사람이 있었다. 바오즈다오는 어느 해인가 화이하강이 범람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에 처하자 10만 명분의 식량을 내놓아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도 했다.

황제도 이를 인정해 세워 주었다고 하는 패방(牌坊 - 공을 새겨 놓은 패)에는 낙선호시(樂善好施 - 선한 일을 즐거워 하고 베풀기를 좋

아했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

휘상이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것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장사꾼'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상인들의 더불어 사는 삶은 오늘날 중국의 상업과 산업을 관통하는 정신적 지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중국 상인들의 삶에서 되새겨 봐야 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는 6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기업경영은 이 나라를 위해 좋은 것이죠, 더욱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뉴욕의 기업사회공헌위원회의 수잔 브로스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시기에 참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기업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경쟁, 경제적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더욱 늘어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불어 사는 삶을 기업경영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CEO의 삶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메사추세츠 렉싱턴에 소재한 임직원이 145명에 불과한 소프트웨어 회사인 '임스위치'의 경우, 2001년 이윤의 감소로 기부금을 13퍼센트 감축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난해 50%가 늘어난 10만7600달러(약 1억3천만원)로 기부금을 다시 늘렸다.

창업주인 로저 그린의 세전 이익 5% 기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임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한 것이다.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은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그린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이며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처럼 6백년의 세월과 동양과 서양이라는 시공을 넘어 조금도 퇴색하지 않은 채 '더불어 사는 삶'이 주는 아름다움은 오늘 우리들 사이에도 흐르고 있다.

공동모금회와 벤처기업협회가 2001년부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기업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한사랑 벤처릴레이'를 통해 '낙선호시'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어느새 40여 곳을 넘어섰다.

냉엄한 경쟁논리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삶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던 휘상들의 넉넉한 마음이 더욱 간절한 요즘이다. **KOV**